'독안에 든' 강도 총 쏘고도 놓쳤다

광주 금은방 3억원대 탈취 … '얼빠진 경찰' 두 차례 대치 검거 실패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격·신고
용의차량 지목 해줘도 검문 허술
실탄 3발 발포하고도 '우왕좌왕'

흉기를 든 3인조 강도가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권총 실탄까지 쏘며 추격에 나선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유유히 사라졌다.

범행 당시 경찰은 금은방 주인이 용의자들을 추격해 현장까지 안내했는데도 두 차례에 걸친 대치 끝에 용의자들을 눈앞에서 놓쳐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범행 20분 만에 3억원 상당 털어=1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광주시 남구 구동 김모(39)씨 형제가 운영하는 B금은방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했다.

용의자들이 흉기로 위협하자 김씨 형제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목과 손바닥에 흉기에 긁혀 상처(1~3㎝)를 입었으며, 가게에 있던 이웃 주민 김모(여·53)씨도 폭행을 당했다.

이후 용의자들은 김씨 형제와 함께 있던 주민 김씨의 양손을 스타킹으로 묶은 뒤, 2명은 흉기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나머지 1명이 진열장과 금고에 있던 금품을 자루에 옮겨 담았다. 20여분 뒤 시가 3억원 상당(피해자 추정)의 금 7.5㎏ 가량과 현금 120여만원을 빼앗은 용의자들은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용의자들이 사라지자 김씨는 양손에 느슨하게 결박된 스타킹을 풀고 경찰과 경비업체에 신고하는 한편,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에 나섰다.

◇숨막히는 추격전…총격 뚫고 도주=경찰이 첫 신고를 접수 받은 시각은 오후 8시17분. 광주남부경찰서 방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6분 뒤인 오후 8시23분 동생 김씨의 안내에 따라 남구 주월동 미래아동병원 앞 도로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 가량 떨어진 이 곳에서 1차 검문을 시도했으나 용의자들은 퇴로를 열어두는 등 경찰의 검문이 허술한 틈을 타 다시 차량을 몰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남구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앞에서 또 한 차례 용의차량을 발견, 호신용 3단봉으로 앞유리창을 깬 뒤 권총으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30여분 뒤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건너편 골목길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했으나 이미 용의자들은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버려진 용의차량이 지난 14일 밤 광주시 치평동 제일은행 앞에서 도난당한 차량임을 확인했다.

◇다잡은 용의자 놓쳐…"미숙한 대응" 원성=피해자 김씨가 용의자들을 뒤쫓기 시작한 것은 오후 8시17분. 김씨는 주월동 미래아동병원 인근 뒷길에 주차 중인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119구조대에 신고해 위치를 알렸다. 당시 용의자들은 범행에 쓰인 흉기 3점과 구두 등을 도로에 버리고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씨가 지목한 차량에 대한 검문에 나섰으나 용의자들의 저항에 밀려 검거에 실패했다. 용의자들은 차량 앞문으로 달려드는 김씨의 오토바이를 뒤로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16일 광주시 남구 구동 B금은방 안에서 업주 김모(49)씨가 전날 용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앞바퀴가 펑크나고 유리창이 파손돼 광주남부경찰서 주차장에 보관중인 용의 차량.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어 경찰은 용의차량이 정면에서 오던 승합차 때문에 모아산부인과 앞 길에 갇히자 용의차량을 순찰차로 막은 뒤 실탄을 발포했지만 또다시 검거에 실패했다. 용의자들은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타고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경찰의 우왕좌왕한 수사 방식이 너무도 답답했다"며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 4명은 9시가 되니까 근무교대하고 퇴근했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수사본부 설치…감찰 착수=경찰은 백운 1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초동조치 과정에서 허술한 대응과 지령 전달 체계 부실로 용의자들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잇단 살인·강·절도…경찰 속수무책
광주 민생치안 불안

최근 광주에서 살인과 강·절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거듭, 민생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동안 수사 경찰 610명을 투입해 강·절도와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6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민생침해사범 382건을 단속, 281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발생한 살인과 강도 및 절도 사건 등 굵직굵직한 강력사건 수사에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5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 김모(39)씨 형제가 하는 보석공방에 복면을 쓴 3인조 강도가 침입, 흉기로 위협한 뒤 시가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으나 경찰은 코앞에서 범인들을 두 차례나 놓쳤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1시께 동구 계림2동 주민센터에 절도범이 침입했다가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5건의 동 주민센터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또 지난달 19일엔 북구 중흥동 H교회 인근 화단에서 김모(50)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범죄 소탕기간에 이런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안타깝다. 방범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판사 죽이고 싶다' 책 펴낸 교수 징계 정당"
광주지법 판결

자신이 낸 소송이 줄줄이 기각된 것과 관련,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대학교수에 대한 대학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16일 전남대 유모(62)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법률 해석이 일반적인 법률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쓴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출판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007년 11월 미국 일리노이대 교환교수 경력을 인사기록에 추가해 달라는 등의 민사소송 5건을 냈지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두 각하당했다.

이에 유 교수는 자신의 소송 기록과 사법부 비판 내용 등을 담은 책을 출판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 보냈으며, 전남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유 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최경호기자 choice@

아내·두 아들 살해, 방화범에 무기징역
광주지법 선고

아내와 어린 자식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비정한 2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16일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범행은폐까지 시도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광주시 광산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인 A(29)씨와 큰 아들(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내 둘째 아들(2)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보일러 교체하다 사망

16일 오후 3시17분께 목포시 죽동 모 사우나에서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던 김모(51)씨가 보일러에 머리를 깔려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길이 2m, 넓이 1m 크기의 원통형 보일러를 교체하던 중 보일러가 넘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장애인 금품 훔친 암체 '커플 도둑'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6일 "전화 좀 사용하겠다"고 속여 장애인의 집을 뒤따라가 금품을 훔친 이모(17)군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8일 새벽 3시1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안모(48)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38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연인 사이인 이들은 안씨에게 "우리 집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으니 잠시 전화를 사용하겠다"고 속인 뒤 뒤따라가 범행.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찍힌 이군 등의 사진을 확보, 이들을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리틴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운암동	대1139,건1959	111억	62억	신축요양병원
노안면	대663,건203	5억7천	4억	주유소,가든
지석동	대151,건213	5억	2억2천	2층의원약국
오치동	대131,건159	4억1천	2억9천	2층 공장
신안동	대88,건295	8억6천	4억4천	4층 빌딩
송정동	대127,건175	5억1천	3억6천	원룸24세대
학동	대82,건147	4억3천	3억	원룸20세대
오치동	대281,건231	7억4천	2억6천	2층 공장
늘상동	대167,건686	28억5천	15억9천	7층 빌딩
운암동	대238,건755	26억9천	15억	8층 빌딩
쌍암동	대137,건501	19억5천	10억9천	5층유흥타운
월산동	대124,건371	10억8천	3억8천	5층 빌딩
소촌동	대802,건1387	64억8천	28억	7층찜질방

아파트/빌라 박경원이사 010-2611-5598

소재지	명칭	평	층층/층	감정가	최저가
일곡동	현대아파트	24	17/3	6천6백	4천7백
일곡동	벽산아파트	32	21/2	1억1천	8천5십
월곡동	하남금호타운	31	15/11	9천	6천3백
두암동	현대아파트	57	18/4	2억1천	1억5천
연제동	현대아파트	61	20/6	1억5천	1억8백
유촌동	호반리젠시빌	34	16/3	1억4천	9천8백
치평동	현대아파트	32	19/5	1억4천	1천1천
우산동	현대아파트	55	15/9	1억6천	9천
화정동	금호아파트	49	15/14	1억7천	1억2천
쌍촌동	모아제일	32	20/1	1억2천	7천6백
화정동	트키엠주@	27	10/1	6천	4천2백
일곡동	대림아파트	20	17/8	6천	4천2백
학 동	현대아파트	59	15/9	2억7천	2억1천

주택/재개발 여영철팀장 010-3633-9811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용봉동	대39,건47	8천7백	4천9백	2층주택
누문동	대30,건15	7천1백	4천	주택
월산동	대44,건38	8천1백	3천6백	주택
곡성오곡	대118,건30	4천3백	1천5백	주택
임동	대54,건36	1억	4천5백	주택
신안동	대70,건41	1억2천	5천3백	주택
백진동	대34,건35	8천3백	2천9백	주택
월산동	대40,건53	1억5천	6천6백	2층주택
용봉동	대34,건40	9천2백	3천3백	2층주택
백운동	대45,건42	8천7백	4천9백	2층주택
염광읍	대112,건65	1억5백	4천7백	주택
삼거동	대245,건87	1억	5천6백	주택
곡성읍면	대105,건35	6천2백	2천5백	주택

숙박시설/상가 정여사 010-5879-090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문흥동	대410,건871	33억	23억	8층모텔
학동	대83,건328	7억1천	3억1천	5층모텔
불로동	대82,건173	3억8천	2억2천	4층모텔
신안동	대107,건343	11억5천	5억1천	5층모텔
회순	대1092,건898	17억	3억2천	6층모텔
중흥동	대120,건403	13억	5억8천	6층모텔
쌍암동	전용 23	2억4천	6천9백	3층상가
월계동	전용 323	11억	3억1천	지하상가
매월동	전용 57	3억	1억	1층상가
화정동	전용 24	1억4천	6천4백	2층상가
지평동	전용 26	1억6천	7천1백	2층상가
봉선동	전용 15	2억8천	8천	1층상가
화정동	전용 12	1억1천	5천2백	1층상가

근린주택 박경원이사 010-2611-5598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주월동	대232,건262	7억	4억9천	3층근린주택
월산동	대105,건266	4억6천	1억6천	3층근린주택
풍암동	대85,건116	3억5천	2억4천	3층근린주택
양동	대60,건105	2억9천	1억3천	4층점포
두암동	대45,건51	1억1천	6천6백	2층근린주택
회순읍	대216,건851	22억8천	12억8천	5층근린주택
금호동	대107,건193	5억7천	4억	3층 교회
각화동	대40,건67	1억6천	9천1천	3층근린주택
중흥동	대50,건184	3억4천	2억4천	4층근린주택
우산동	대34,건54	1억4천	4천8백	3층근린주택
산수동	대67,건153	3억3천	2억3천	3층근린주택
월산동	대124,건370	10억8천	3억9천	5층근린주택
소촌동	대802,건1387	64억8천	28억	7층근린주택

공장/토지 손해연이사 010-9611-2817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본촌동	대 85	1억2천	8천8백	대지
신용동	대 156	1억3천	9천4백	농지
장덕동	대1500,건1455	31억3천	20억4천	공장
임곡동	대 153	4억9천	3억4천	대지
신용동	대 156	1억3천	9천4백	농지
신창동	대 325	2억8천	1억6천	대지
지산동	대 49	7천	3천1백	대지
나주삼영	대 282	8천6백	3천1백	농지
운수동	대634,건185	11억6천	5억1천	공장
오선동	대70,건129	2억	5천7백	아파트형공장
대촌동	대799,건813	26억3천	18억4천	공장
복운동	대 38	7억4천	3억3천	대지
요기동	대 124	2630	1180	대지

생촌동 2종주거지역매매 대지2339㎡ 급매매 12억5천만 원룸, 빌라, 교회, 대형음식점 매매문의 010-7570-7525

진월동 광주대입구 상가매매 호프 122㎡,분식 66㎡세탈백 방짜 매매가 1억8천(계원, 보증금 실인수금 3천만원 매매문의 010-7570-7525

평동산단공장임대 [공장 사무실 180㎡] 풍은임대조건 입지조건최상 분할 임대 가능 임대문의 010-7999-4320

풍암동 대538㎡, 건308㎡ 감정가 48억 최저가 29억 마트, 찜질방 전문상담 010-7570-7525

운암동 대1139㎡, 건959㎡ 감정가 111억 최저가 62억 신축요양병원 전문상담 010-7570-7525

소촌동 대902㎡, 건1387㎡ 감정가 64억8천 최저가 36억 마트/찜질방 전문상담 010-7570-7525

삼계면 대2548㎡, 건1077㎡ 감정가 51억5천 최저가 18억4천 자재제생공장 전문상담 010-7570-7525

대호온돌침대/까사갤러리
광주신세계백화점 특가판매
광주신세계 지하1층에서 만나십시오!

돌침대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돌침대-대호온돌나라!!
부모님 효도선물로 최고입니다.
두한족열 침대란?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덥게 하라" 즉 항속열 상태일때 수족냉증 혈관이 이리 인체 기타 부드 심게 아직얼어 흐르게 되어 합한 대사라고 땀을 흘 해 로우이 얻는 노폐물과 쌓여 얻는 독소가 배설 다가 몸 전체가 한결 되다고 합니다.
Ondolnara www.ondolnara.co.kr
신세계매장 : 062-360-1902
본 사 : 031-768-3259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26번지